

현대의 이해 기말고사 답안.

2018.12.26.7 조명타.

1.

기초의 시적 문체는 전형시에서 도출된 율격 개념을 기반으로 한 음수(7.5조, 4.4조)나 음보(4음보)를 기반으로 해석했다. 그러나 현대시는 자유시이므로 전형시의 틀 안에서 현대시로 해석하는 것은 유의미하지 않다. 또한 문체는 양문자 문장의 형식어인데, 음수문나 음보문만으로 시를 해석한다면 일정한 위치에서 일정한 의미가 위치하면서 생기는 규칙성인 양문의 가능성이 부정되고, 정형적이지 않은 것들은 시의 운율에서 배제되어 버린다. 현대시의 문체는 부분적으로 관찰되기도 하고 리듬감을 배반하면서 리듬감을 의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김영의 '무심'은 '평양에서 대동강 / 나간 물이냐'라는 구절에서 알 수 있듯이 7.5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입을 향한 그해바라는 주제의식과 7.5조의 형식이 결합된 시를 '민요시'라고 하고 이것을 김소월이 계승하기도 했으나, 사실 7.5조는 민요에서 온 것이 아니라는 일본의 신채시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며 계몽의식이나 주제의식을 우리에게 익숙한 주제로 바꾼 것이다.

현대시에서 리듬감을 배반하면서 리듬감을 의식하는 예시로는 박목월의 '창구'를 수 있다. 이 시는 '느름속 속살 피어나는 연두 재빨리 / 창구 많은 눈이 / 조는 구름'과 같이 부채꼴로 된 연의 구절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를 통해 '1'로 구분한 각 연이 동등한 무게로 읽힌다. 느름속의 속살이 피어나는 것, 느름속의 속살처럼 창구의 눈이 많은 것, 연두 재빨리 구름이 뜬 것이 극적인 연의 구절을 통해 드러난다. 이와 비슷한 예로 박노해의 '지루한 부름'이 있다. 이 시에서도 '아 / 없어, / 없어'라는 극적인 행간으로 내가 내일을 증명하는 지루한 부름이 많아 없어진 고통을 드러낸다.

또한 황자유의 '무등'처럼 시각적인 형태로 리듬감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 시는 시의 모양으로 구성되어 산의 형태를 시각적으로 보여 준다. 무등적인 평릉이다 평사로 산을 수식하고, 그것들이 나열되어 이 시를 밑에서부터 위로 받쳐 주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기도 한다. 백석의 '나와 나리사아 큰 강아리'와 박상운의 '반기 길다'에서는 읽는 호흡을 통해 한자의 상태를 보여 주기도 하고, 황인숙의 '조강'에서는 '후, 후, 후, 후! / 하, 하, 하, 하!' 같이 호흡 그 자체로 한 연이 구성되어 있다.



2

주어진 이병훈의 '사랑의 역사'에는 이미지의 전이가 나타난다. 화자는 금현 자국이 여럿인 벽 뒤에 살았다고 한다. '금현 자국'은 타인에게 받은 상처를 의미한다. 화자는 이 상처를 외면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상처를 받는 것이 "내 소란이 아닌 것 비로소 알게 됐을 때" 화자의 '묵묵미에선 반레없이 떠돌 뽕새가' 풍겼다. 여름 뽕새라는 것은 땅을 흔드는 사랑의 뽕새라고 해석할 수 있으므로 결국 화자는 벽 뒤에서 나와 다른 사랑을 꺼안게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벽 뒤에 숨어 있는 모습에서 벽 밖으로 나와 다른 사랑을 꺼안은 모습으로 이미지가 전이한 것은 확인할 수 있다.

관습적으로 이미지를 해석하는 방식에는 이미지를 시문과 동일시하거나 이미지를 단순한 움직임에 따라 구분하거나, 아광대입적인 것으로 구분하는 등의 방식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으로는 시를 제대로 읽을 수 없다. 기형도의 '안개'에서 안개를 실제 안개와 동일시하여 동원적인 분위기를 지어낸다고 생각하면 이 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 '안개'에서 안개는 오히려 '빈 구멍' 같고, 그 위에 '노랗고 딱딱한 태양'이 걸려 있고, '공장'이 회귀하는 시내적 생활과 결합하여 다른 것을 속아내는 거대한 제로처럼 읽히기 때문이다. 박목철의 '하관'은 하강 이미지로 많이 해석하는데, '관이 내려왔다'는 것은 단순히 땅에 관이 묻힌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관이 들어왔다는 것, 즉 이 슬픔을 내면화했라는 것으로 읽을 수 있다. 또한 '눈라 비가 내리는 세상'이라는 구절에서는 적막한 죽음자의 세상과 반향한 살아 있는 화자의 세상이 대조되어 단절감을 느끼게 된다. 김수영의 '눈'은 긍정적인 것으로 '눈'을, 부정적인 것으로 '가래'를 들어 설명해 왔는데, 사실 '가래'는 내가 살아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최후단의 행위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따라서 지혜사의 이미지를 단순히 구분하거나 아성에 종속시킨다면 그 이미지의 의미를 충분히 헤아리지 못할 수 있다.



3

정공현은 반어를 텍스트 내적 진술에 의해 형성되는 것, 텍스트 외적 맥락에서 읽을 수 있는 것, 언어적인 것, 구조적인 것을 기준으로 삼아 '모순행용의 아이러니', '반대진술의 아이러니', '극적 전환의 아이러니', '시적진실의 아이러니'로 유형화했다. 이 중 텍스트 내적 진술에 의해 형성되는 것은 '모순행용의 아이러니'와 '극적 전환의 아이러니'이고 텍스트 외적 맥락에서 읽을 수 있는 것은 '반대진술의 아이러니'와 '시적진실의 아이러니'이다.

먼저 텍스트 내적 진술에 의해 형성되는 아이러니 중 '모순행용의 아이러니'의 예시에는 김수영의 '푸른 하늘은'이 있고, '극적전환의 아이러니'의 예시에는 최승자의 '공포수 없는 잠잠함'이 있다. '푸른 하늘은'에는 '어제서 자유에는/피의 냄새가 섞여있는가를', '혁명에 내 고통한 것인가를'이라는 구절에서 자유-피, 혁명-고통과 같이 이미지와 비유 사이에서 반어를 찾을 수 있다. '공포수 없는 잠잠함'에서는 '나는 한없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싶었다.'라고 하면서 '만 죽었으면'으로 떨어지고 있는 문장은 평상화한 것처럼 보였으나 마지막 행에 '아 삼!(태 안 떨어지지?)'라는 구절을 통해 사건과 구조 사이에서 반어를 찾을 수 있다.

텍스트 외적 맥락에서 읽을 수 있는 아이러니 중 '반대진술의 아이러니'에는 함자유의 '아이들은 먼 것을 보기를 좋아한다'가 있고, '시적진실의 아이러니'에는 한용운의 '모순'이 있다. '아이들은 먼 것을 보기를 좋아한다'에서는 '아이들은 언제나 앉아서 TV를 선택한다'는 구절이 있다. 아이들과 TV 사이의 거리는 거의 없었던 듯한데, 먼 것을 보기를 좋아한다고 했으므로 반어이고, '그렇게 텔레비전을 뚫 보게 해라'라는 구절에서 이들의 금지의 의미로 아이들이 TV를 선택한다고 표현했으므로 이 또한 타당성 사이에서 반어를 찾을 수 있다. '모순'에는 '모순은 존재가 아니고 주관적이다'라는 구절이 있는데 결국 인간이 삶이 모든 그 자체라는 깨달음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의미와 인식 사이에서 반어를 찾을 수 있다.

그리고 한유진의 '문'은 '별이나 강이 리게' 만나는 별이나 별이나 담보라 더 돈독한 듯이 리지 만나는 법은 있다'라는 구절에서 확인한 듯 있듯이 계속해서 진술을 독립하면서 시를 전개하고, 결국 문이 별이나 강보라 든든하다고 하는 것에서 텍스트 내적 진술에 의해 반어가 형성되는 예시이고, 임술아의 '터브이'에서는 '우리나라 이야기가 아니냐'고 그는 눈물이 안 난다'라는 TV가 보여주는 현실과 나의 현실 사이에 거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절을 통해

그러나 '나는 터브이 속으로 들어간다'라는 구절에서는 TV 속 현실에 있는 사람과 연대하고 싶은



가능성을 보여주기로 한다. 이런 점에서 이 시는 텍스트 미적 맥락에서 반어론 찾을 수 있는 시의 예시이다.